

지리산 상터복 화장실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국립공원



글_이영석 (시설관리부장)

놀이문화에서 탐방문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7. 12. 29 지리산을 국립공원 1호로 지정한 이후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 현재까지 20개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이용의식이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립공원을 유원지로 인식하고 무질서한 취사·야영과 무단방분, 방노로 인한 악취와 쓰레기 투기 등으로 환경오염은 물론 훼손이 확대되었습니다. 90년대에는 국립공원 이용 문화의식개선을 위해 취사야영 행위장소를 지정하고, 훼손된 지역은 자연 또는 계곡 휴식년제로 지정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각종규제와 훼손지의 복구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연 자원의 중요성 등을 홍보한 결과 자연생태계는 물론 계곡에는 가재, 버들치 등이 다시 돌아올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국립공원 탐방행태가 놀이문화에서 경관감상 및 탐구 등 학습문화로, 무작정 산행 하던 등산 목적에서 자연을 음미하고 체험하는 탐방개념으로, 이용 문화 의식변화는 물론 국민의 생활수준 및 환경보전 의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국립공원내 공중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개선

국립공원에서는 439동의 공중화장실과 785동의 간이화장실 등 1,224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을 이용자 편의와 자연친화성은 물론 환경오염 및 시설관리 등의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설치위치, 건물형식, 내부설비, 정화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에도 40여억원을 증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입구 및 탐방로(등산로)시점과 같이 탐방객 밀집지역에는 장애인 및 여성, 노약자 편의시설 등을 보강한 양질의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산 정상부 및 계곡 등은 지형조건상 화장실의 설치와 분뇨처리가 어렵고, 도로망 확충 및 교통의 편리로 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원이 1일 탐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화장실 설치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노후 불량화장실은 존치 필요성 여부와 보수방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히 철거 또는 적정한 시설로 보완·개선하고 있으며, 특히 기존 공중화장실 정화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어 탐방객 편의제공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만족하는 시설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이나 개수 시 화장실이 단순 생리적 처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만남의 공간, 여행 정보제공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자연속의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간배치와 정화시설 개선에 중점

공중화장실이 편의시설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공중화장실 자체도 자연속의 일부가 되고, 이용자 또한 자연과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공간마련과 정화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해 신축한 지리산 장터목, 북한산 삼전리골 공중화장실은 화장실 이용시 창문을 통하여 보여지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 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화장실을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바꾸려는 취지로 건축하였습니다. 공원내 공중화장실은 도시의 일반 공중화장실과 달리 정화시설을 개선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시지역은 발생된

오수를 유입 처리할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있는데 반하여 공원내 공중화장실은 자체적으로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시설을 고성능으로 개선하는 데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선진화된 화장실 문화정착을 위하여 '99년 공중화장실 사진 전시회를 한국관광공사 등과 공동개최 하였으며, 각종 우수화장실 대회 공모에 참가하여 '99설악산 소공원 화장실이 '최우수화장실'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을 위한 문화공간과 함께 특별히 환경보전을 강조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환경정화사업에 힘쓰고 있는 공간민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화장실에 따른 문화공간의 접근과 접근이 자연이 상호교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설관리부를 비롯하여 그 동안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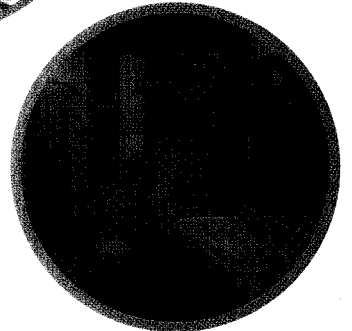
화장실문화 개선 사업 외에도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안전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방객이 부상 또는 조난을 당했거나 각종 불법행위·산불발생시 그 위치를 쉽게 확인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목적 위치표지판 설치, 탐방객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는 훼손지복구사업, 국립공원내 동·식물 자원보호를 위한 생태계 모니터링 사업, 새로운 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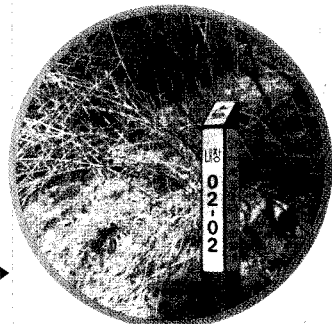
◀(북한산성) 자연해설 프로그램운영

이용객의 눈 높이에 맞춘 화장실개선 및 관리

화장실 이용 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시설의 방향을 관리자 위주의 시설에서 이용이 용이하도록 이용 탐방객의 눈 높이에 맞추고, 2002년 월드컵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노후된 불량 화장실을 자연친화적인 건축형식과 재료, 공법 등을 채택하여 다목적의 문화공간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특히 북한산국립공원에 그동안 우리공단에서 축적한 화장실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수준의 공중화장실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짧은 시간이나마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해 나가겠으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정화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설악산 노루목화장실



▶다목적 위치표지판 설치▶